

정 의사(鄭醫師)

순천에서 하동으로 통하는 이등 가로를 누렇게 칠한 대형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바른쪽으로 섬진강을 낀 평야는, 가도가도 강렬한 유채꽃의 노란 빛과 봄바람에 물결치는 보리밭의 연둣빛뿐이다.

오후의 햇빛을 담백 머금은 섬진강 줄기는 강건너 대밭 그림자를 어린 채 은가루를 뿌린 듯이 반짝거리며 굽이 흐르고 있다.

피꼬리 날개 빛으로 무성한 대밭 너머로 지리산(智異山) 산줄기의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검은 푸른빛으로부터 옅은 보라색으로 첩첩이 솟아, 끝은 자욱한 하늘에 풀려져 있었다.

평탄한 넓은 평야 곳곳에는 마을이 있어, 그 옆을 지날 때에는 흰 칠하게 자란 미루나무와 꽃이 만발한 살구나무로 에워싸인 돌담을 둘러싼 농가에서 한가로운 닭의 울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버들 피리를 불던 소년이 맨발로 자동차 뒤를 쫓아오기도 하였다.

괴나리 붓짐을 진 늙수그레한 농부와 구김살 투성이인 분홍 치마를 잘 여미지 못하고 쑥스럽게 중동띠를 맨 젊은 여인이 술병을 안고 걸어가다가, 뒤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에 발을 멈추고 손을 들었

다. 그러나 검정 안경을 낀 운전사는 손짓 하나 하지 않고 냉연히 차를 달린다. 입을 벌리고 차 뒤를 묵송하는 그들 머리 위에서 종달새가 재재거렸다.

차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 ‘○○ 버스 정류장’이라고 쓴 나무 간판이 붙은 초가집 앞에서 머물렀다.

차표를 사는 사람이 열을 짓고 있는 옆에는 뽕양계 먼지를 쓴 과자랑, 시들은 사과랑, 오징어 사이다 나부랭이를 벌여 놓고, 한복 위에 양복 조끼를 입은 대머리 영감이 차표와 가게 물건을 동시에 팔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운전사는 그 집으로 들어가더니 줄줄 새는 물통에 물을 길고 나왔다. 운전사와 조수가 보닛을 열고, 라디에이터에 물을 붓고 있는데, 누르통통한 머리로 커다란 쪽을 찢 시골 부인네가 두 손에 잔뜩 보따리를 들고 차표를 입에 물고 차 위로 올라섰다.

“여보 여보! 뭐요, 뭐야!”

맨 뒤에 앉았던 광대뼈가 푹 볼그러진 중년 남자가, 엉거주춤하게 상반신을 일으키고 통명스럽게 호통을 한다.

“예? 지는 읍내꺼증 가요.”

“안 돼요, 안 돼! 썰기 내리소.”

“아 이기이 읍내 가는 차가 아잉교?”

“잔소리 말고 썰기 내리래니께로.”

중년 남자가 소리를 더 높이는데 작업이 끝난 운전사가 돌아오더니, 말도 듣지 않고 우악스럽게 시골 부인네를 끌어내리고 운전석에 올라 앉았다.

차는 또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은 자동차 엔진 소리뿐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좀 전에 시골 부인을 호통한 그 중년 남자는 두 손으로 각지를 켜다가 무릎을 안아 보았다가 콧구멍을 찔다가 종시 편편치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만족과 영광으로 상기되어 웅숭그리고 앉은

채 앞에 앉은 뚱뚱한 신사 쪽에 전주의력(全注意力)을 집중시키고 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충견(忠犬)같이.

“H읍까진 아직 멀었나?”

앞에 앉은 뚱뚱한 신사가 고개를 돌려 점잖게 묻는다.

“네 아직 삼십 리 가령 남았습니다. 지리하시죠?”

광대뼈 나온 남자가 비굴하게 선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아니 우리네 속진에 시달리던 몸에는 마치 선경에나 온 것 같아. 저게 무슨 나무지?”

하고 그는 왼편 마을 뒤 나즈막한 언덕을 눈으로 가리켰다.

“글쎄요.”

광대뼈 나온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지 뒷머리를 긁고, 옆에 앉은 누렇게 결은 와이셔츠에 조그만 부 넥타이를 맨 친구에게

“면장님 무슨 나무죠?”

하고 묻는다. 면장은 긴장과 너무 오랜 침묵 끝이라 성대(聲帶)에 이상을 일으키며

“동백나무요.”

한다는 것이 “뚱배나무요.”라고 들렸다.

그 옆에서 역시 여태껏 말이 없던 캡에 니커보커스를 입은 중년 신사가

“여기는 동백골입니다. 동백기름으로 유명하지요.”

하고 표준어로 다시 설명하였다.

면장은 무슨 큰 실책이나 한 것처럼 얼굴이 벌개지고 니커보커스 신사——H군 군수는 자기 자신에 만족하여 몸을 흔들며 고쳐 앉았다.

세 사람의 얼굴은 하나같이 비굴한 충성과 귀빈을 모신 영광과 까닭 모르는 압박감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명사(名士)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사도 경의와 찬양(讚仰)과 비굴에는 젖어 있었다. 따라서 이 평범한 시골 인사들의 최대

한의 경의도 그다지 개의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자신이, 말하자면 배짱이 그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차 안에는 또 침묵이 흘렀다.

담즙질인 뚱뚱한 신사는 어느덧 넓다란 가슴에 턱을 파묻고 잠이 들고 그 옆에는 깔끔한 얇은 회색 봄 외투에 검은 소프트웨어를 쓴 결국 하게 생긴 초로의 신사가 약간 꾸부정한 몸을 상아 손잡이가 달린 단장에 의지하며, 말없이 차창에 시선을 던지고 있다.

뚱뚱한 신사는 재계의 중진인 동시에 정계에서도 중심 인물의 한 사람인 XX당의 신명호 씨고, 옆에 앉은 신사는 도규계(刀圭界)의 제일인자 XX의과 대학 학장 이필진 박사였다.

그들은 H읍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는 신명호 씨의 사촌 신경호 씨, 그 광대뼈 나온 남자의 어머니의 회갑에 초대를 받아 H읍에 온 김에, 그 곳에서 멀지 않은 화엄사와 쌍계사 구경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

신명호 씨가 그 다사한 틈을 타서 천리 길을 무릅쓰고 숙모의 회갑에 참석한 것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그 숙모의 양육을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상불 한토막 미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와 막역한 이 박사는 혈압이 높은 친우의 건강도 염려되었거니와, 고찰의 봄을 탐승하자는 데 마음이 끌려 신씨와 동행한 것이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비서는 이런 시골에 비공식으로 온 이상 자기 정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매사에 냉연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차가 지리산 중의 한 분지(盆地)에 자리잡은 H읍에 도착하였을 때는 저물기 쉬운 산기슭에는 황혼이 스며들고 있었다. H읍은 삼방은 산이고 남쪽만이 터져, 넓은 들판이 벌어지고 첩첩이 둘러싼 산모퉁이를 도는 자동차 길이 단속적으로 허옇게 보이고 있었다.

들 가운데를 흐르는 강에서는 수증기가 오르기 시작하고 안개의

떠를 떴 산들은 낮보다 가까워 보였다.

자동차는 장터 네거리 양조장 앞에서 머물렀다.

이 박사가 마악 그 큰 키를 구부려 차에서 내렸을 때 낡은 검은 가방을 들고 옆을 지나던 작달막한 대머리 남자가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해 내려는 듯이 이 박사 쪽을 응시하였다.

남은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쏟아져 나왔다. 군수를 보자 그 남자는 “야아 영감, 어디를 갔다 오슈?”

하고 소리를 쳤다.

“아 정 선생 왕진갔다 오시는 길이구료.”

군수는 이렇게 말한 후

“서울 손님들을 모시구 쌍계사에 갔다 오는 길이오.”

하고 그 옆에 가까이 와서 음성을 낮추어

“XX당의 신명호 씨!”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정 선생은 고개만 끄떡였을 뿐 신씨는 주목하지 않고 이 박사 쪽만 보다가 눈으로

“저이는?”

하고 물었다.

“XX의과 대학 학장이라나. 의학 박사랍디다.”

정 의사는 그 말을 듣자 이 박사 쪽으로 다가가서

“실례니다만 이필진 씨가 아니세요?”

하고 허리를 굽혔다.

이 박사는 이런 시골에서 낯설은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듣는 것이 뜻밖이라 언제든지 미심한 일에 부딪혔을 때의 버릇으로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네 이필진입니다만…….”

정 의사의 얼굴은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이내 밝아지며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는 정병모요.”

그는 큰 소리로 외치고 이 박사의 손을 덥석 쥐었다. 그러나 이 박

사는 아무리 고개를 기울여도 그런 이름이 기억에 없었다. 그는 미간에 주름살을 점점 깊이 잡으며

“글쎄요,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 의사는 무안한 듯이 손을 놓았다. 이 박사는 너무 몹시 쥐여 자 죽이 난 손을 뒤로 돌려 뒷짐을 졌다.

“의학 전문 동창 정병모…….”

실망한 정 의사는 혼잣말처럼 힘없이 중얼거리고

“아니 실례했습니다.”

하고 발길을 돌렸다.

뚱뚱하게 살이 찐 정 의사는 몸을 뚝뚝 자빠뜨리고 헤엄이나 치듯이 어기적어기적 걸어갔다. 한쪽 발을 약간 저는 것같이 신발을 짹짹 끄는 그 걸음거리를 보자,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그 뒷모습을 노려 보던 이 박사는 불현듯

“앗! 정 땅딸보!”

하고 외쳤다.

그는 놀라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정군 정군!”

하고 소리치며 긴 다리로 성큼성큼 정 의사의 뒤를 쫓았다.

정 의사는 뒤쫓아온 이 박사를 보자 일순 얼굴이 핑색해지더니 이내 확 달아올랐다.

“아, 역시…….”

그는 상대방의 너무나 훌륭한 풍채에 놀려 ‘군’이라고 할까 ‘선생’이라고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역시 이 선생이셨군!”

하고 만면에 웃음을 띄웠다.

“참 실례했소. 건망증도 이만하면 고맙게 들었던 말야. 정군을 몰라보다니.”

말할 수 없는 신경질인 이 박사로서는 한껏 한 농담이다.

“뭘 홍안의 미소녀가 대머리로 변했으니, 알아보는 쪽이 이상한 일이지 하하하…….”

정 의사는 유쾌한 듯이 꺾꺾 웃었다.

“여기서 개업허구 있소?”

“아…….”

“언제부터?”

“그럭저럭 삼십 년 되지. 곰이 필 때가 됐소.”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에 키가 큰 구부정한 이 박사와, 훌쩍 벗어진 대머리 정 의사의 작달막한 뚱뚱한 몸집이 기묘한 대조를 자아내며, 큰길에서 자동차로 잘 안 들어갈 만한 골목으로 빠졌다.

“그리 지장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삼십 년 만에 마음껏 구정을 풀게.”

정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이 박사도 서슴지 않고

“동행들이 기다리겠지만 뭘 괜찮어…… 오늘은 둘이서 회고담이나 허구 지내지.”

한다. 두 사람은 걸음을 빨리하여 ‘정병모 의원’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붙은 집으로 들어갔다.

병원은 순 조선식 구옥이었다. 대청에 진찰실을 꾸미고 바른편 큰 방이 정 의사의 거실이고, 왼손편 작은 방이 약국으로 쓰이고 있었다.

앞마당에는 축을 싸서 화단을 만들고, 꽃을 단 나무 그늘 곳곳에 괴석들이 놓여 있었다. 큰 방 창 가까이 한 그루의 늙은 매화나무에 꽃이 구름같이 피었다.

두 사람은 분합문이 활짝 열린 대청에 올라가 바른편 큰 온돌방으로 들어갔다.

“나 잠깐 안에 들어갔다 오겠소.”

하고 정 의사가 자리를 비긴 후 이 박사는 대청으로 나가 옛 친구의 진찰실을 두루 돌아보았다.

애초에는 하얗게 칠한 듯한 유리장 속에 그리 많지 않은 구식 의구들이 널려 있고, 벽전에는 벗어진 검정 가죽으로 찢 딱딱한 침대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찌들은 혈액 순환도(血液循環圖)와 시력 검사표(視力檢査表)가 걸렸고, 좀구멍 투성이의 파란 나사 조각을 압정으로 눌러 덮은 책상 위에는 카르테 처방전 의학서, 여러 가지 약품을 담은 조그만 병들이 올망졸망 놓였고, 그 앞에는 한편으로 기울어진 회전 의자, 그 옆의 나즈막한 조그만 탁자 위에는 약솜통이랑 도금이 벗겨진 주사기 케이스가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었다.

크레줄을 담은 대야는 사기가 터져서 녹슬은 쇠가 보이고, 옆에 걸린 수건은 이 박사가 부지중 상을 찡그렸을 만큼 때가 묻어 있었다.

이 살풍경하고 초라한 진찰실을 일별하자, 이 박사의 얼굴은 민소(憫笑)로 찌그러졌다. 우월한 자리에 있는 자가 가지는 싸늘한 모멸감(侮蔑感)이 명의의 머리에서 보잘것없는 시골 의사의 존재를 완전히 멸시해 버렸다.

정 의사가 손수 램프를 들고 나왔다. 그의 별건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입은 반가움과 기쁨에 닫히지를 않았다.

이제 이 박사는 그를 ‘의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조야(粗野)하고 둔한 일개의 촌부자(村夫子)——그에게 준 구우(舊友)의 인상은 이 위를 나오지 않았다.

이 박사는 좀 전에 정 의사 뒤를 쫓았을 때 번개같이 자기 머리를 스친 생각, 즉 자기의 눈부신 공적과 명성을 자궁하고 싶었던 것을 상기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사람 좋은 미련한 시골 의사에게 일순 이나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부당한 일이나 되는 것 같아 우스웠다.

그의 가슴에는 학생 시대가 서연하게 떠올랐다. 아까 이 박사가 그의 성명을 듣고도 기억이 나지 않았을 만큼 별명으로만 통하던 정 땅딸보——정병호는 수재답지 않은 수재였다. ‘이마에 사색(思索)의

낙인(烙印)이 찍힌' 수재 타입에서는 너무나 먼 외모를 가진, 너무나 혈색이 좋고 너무나 명랑하고 키는 답답하게 작은데다 둔할 만큼 살이 뚱뚱히 찐 청년이었다.

이 희극적인 외모에다 말은 뻗뻗한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수재로 자타가 공인해 온 문벌 높은 가문의 자제인 이필진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를 능가할 수가 없었다. 자존심을 꺾인 그는 정병모를 땅딸보 땅딸보 하며 멸시하였으나 시험시에도 평시와 같이 초조해하는 기색이 없는 그의 초연한 태도에 압박을 느껴 도발(挑發)된 경쟁심으로 더욱 면학에 골몰하였다.

가난한 시골 청년인 정병모는 졸업 후 여러 교수들이 간절히 연구를 계속하길 권하였으나 집안 형편으로 사절하고 시골로 내려가 개업을 했던 것이다.

섬세하고 침울한 이필진은 연구실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다가 독일로 유학을 하게 되었다.

꾸준한 노력과 굳은 의지와 명석한 두뇌로 독일 교수들에게까지 찬탄을 아끼지 않게 한 이 박사는 메스를 들면 그 모습부터가 숭엄해 보이도록 신묘하였다.

명성과 실력이 구비됨에 따라 의학교 시대에 경쟁 상대자인 정병모의 존재는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하여 어느덧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 도규계의 권위 이필진 박사가 그 냉철하고 고매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이나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가졌던 것은 잠재하였던 그 옛날의 의학생 시대의 경쟁심이 반사적으로 머리를 든 까닭이리라.

그러나 그 옛날에 수석을 닦았던 상대자가 이토록 변비한 곳에서 개업한 지 근 삼십 년이 되는데 똑똑한 집 하나를 못 지니고 그토록 탁월한 두뇌를 자극 없는 일상 생활과, 불결한 시골 환자와 교양 없는 인사들과의 교우로 흐르게 했을 생각을 하니, 그는 마치 자기가

쓰러뜨린 희생자를 보는 격투자 같은 괴로움을 어찌할 수 없었다.

정 의사는 문갑 위에 램프를 놓고 손바닥을 비비며

“혹자 기아 삼십 년(或者 欺我 三十年)이라드니 이렇게 삼십 년이 지났구려.”

하고 허허…… 웃었다. 이 박사는 그 웃음 소리가 말하는 감개를 뼈아프게 느꼈다.

“참 당신이 그 때 즉시 시골루 떠났을 때 여러 교수들이 애석해 하던 것이 어저께 같소. 아까운 사람을…….”

이 박사는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아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삼십 년 전에는 편협한 자존심이 결단코 입 밖에 못 내게 하던 이 말을, 이렇게도 진실하게 말한 자신의 성장이 너무나 늦었던 것을 깨닫자,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참회가 스미는 것이었다.

한 눈이 찌그러진 머리를 박박 깎은 소년이 조심스럽게 술상을 들고 나왔다. 상 위에는 집에서 빚은 듯한 참쌀 약주에 급제의 안주, 찐지 오징어 따위가 놓여 있었다.

이 박사는 자기의 출현이 이 집에 분주한 소동을 일으키지나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정 의사는 잔이 넘도록 가득 술을 치고

“아아 얼마나 많은 숙제가 인간에 대하여 던져져 있는지! 십만 명의 하나, 백만 명의 하나인 천재가 나타나 그 숙제를 하나만이라도 해결할 때, 문화는 한번에 이십 년 삼십 년의 진보를 보게 되니, 그는 인류의 은인이 아니고 무엇이리오. 선생은 그 백만 명의 하나인 분이시구료.”

하는 것이었다. 그 어조에는 순결한 감격과 찬양이 깃들어 아침은 티끌만치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박사는 평소에 못하는 술이었지만 그 잔을 한숨에 비우고

“너무 과한 말씀이오. 그러나 변변치 못한 노력에 대한 진실한 보수를 오늘 처음 받은 것 같소.”

하였다. 정 의사는

“나도 내 나름으로 한 가지 숙제를 맡아보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하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야말로 천재가 아니었었소?”

“천만에, 보시다시피 나는 일개의 촌 의사에 지나지 않소. 그러나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이상 무엇이든 남기고 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요.”

정 의사는 말을 끊고 일어나 문갑 속을 뒤지더니, 흰 수지 뭉치를 꺼내 왔다.

“이것이 내가 개업한 당시의 카르텐데 이 처방을 좀 보슈. 삼 세 여아의 폐렴인데 해열제로 에틸 탄산(炭酸), 키니네 4. 2그램, 기침에 사리벨시럽 10그램 —— 캠퍼 주사, 산소 흡입, 그리고 온습포 —— 나는 이 내 최초의 환자 때문에 이 주일 동안 잠을 자지를 앓았소. 이 주일 후 그 환자가 머리를 들었을 땐 내가 병이 날 지경이었었거던. 그런데 요즘은 페니실린만 가지면 그만이지 아니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요.”

정 의사는 유쾌한 듯이 꺄꺄 웃었다. 이윽고 그는

“그러나 과학은 무한하고 신비한 미지수요. 어떤 탁월한 두뇌가 어떤 축복된 순간에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다만 기지의 사실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된 따름일 것이요. 선생의 건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였다. 명의로서의 이 박사에게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약간 이지러진 달이 떠올라 방 안에까지 달빛이 왔다. 앞뜰의 매화 향기가 훈훈히 코를 스친다. 이 박사는 두어 잔 술에 창백한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고 오한이 났다. 정 의사는 독작으로 한참 마시다가

“허어 요즘 새로 온 공의는 기관지만 나빠도 페니실린을 써. 환자

의 부담도 생각해야지.”

하고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그럼 이 시골 공의 자리도 못 차지했단 말인가?’ 이 박사는 문득 신씨 일행 환영 연회석상에 모인 지방 유지들 틈에 정 의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상기되었다.

의학계의 기린아로 국외에까지 그 이름이 떨쳤을는지도 모르는 이수재가 이 산 가운데 파묻힌 벽지의 유지조차도 못 되었던가?

“그러나 패니실린이 만능이 아닌 이상, 페렴에 키니네를 쓴 삼십 년 전의 우리를 비웃는 지금 의학도들의 현재 치료법이 또 남의 실소(失笑)를 사는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하겠소?”

정 의사는 말을 끊었다가

“그것이 진보요 발전이요.”

하였다.

안 살림채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그 방까지 들렸다.

“자녀가 여럿이신 모양이군.”

“칠팔 남매 두었소.”

“호오 자복자시군. 아마 동기분두 많으셨지?”

“팔남매에 내가 장남이요.”

그 일곱 아우들 때문에 부득이 수업을 저버린 그였던 것이다.

이 박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나 정 의사의 불과한 얼굴은 우둔에 가까울 만큼 만족스럽게 보이고, 불우(不遇)의 천재란 비장한 그림자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

안에서 애꾸눈이 소년이 저녁상을 들고 나왔다. 이 박사는 식욕이 없었으나 자기가 선불리 명성을 지니고 있느니만큼, 그 소박한 만찬에 손을 아니 댈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정 의사와 같이 걸어왔을 때 혈은 그의 구두가 뽕양개 먼지를 쓰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였다. 그의 눈앞에서는 젊은 공의에게 환자를 빼앗기고 배부른 공의가 거절한, 먼 곳 환자 집에 두벅두

벽 도보로 왕진을 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이 서연하게 떠올랐다.

“정 선생!”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청년이 뜰안으로 들어왔다.

“회사 집에서 서울서 오신 손님 모셔 오라는데요.”

“응? 뭐 별써.”

하면서 정 의사는 회중에서 구석 일본제 커다란 시계를 꺼내 본다.
열한 시였다.

“열한 시! 너무 오래 폐를 끼쳤나 보오.”

하고 이 박사는 일어섰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구우의 손을 꼭 쥐고 무슨 어려운 말이나 하는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참으로 참으로 오늘은 유쾌했소. 오늘의 기념으로 드리니 보실 적마다 내 생각을 해 주오.”

하고 조끼에서 스위스 제 순금 시계를 꺼러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정 의사는 그 말을 이해 못 한 듯이, 한동안 이 박사의 얼굴만 쳐다 보다가 고개를 흔들고 시계를 내밀며

“온 별말씀을. 오늘의 감명은 물질 이상이오. 선생의 우정은 영원히 내 가슴에.”

그의 얼굴은 울음이 섞인 웃음으로 찌그러졌다.

“언제 떠나시오?”

배웅을 나가며 정 의사가 묻는다.

“내일 오후 두 시.”

“그럼 내일 또 봅시다.”

정 의사는 큰길까지 나와 중천에 뜬 달빛 아래 자기 그림자를 밟으며 가는 꾸부정한 이 박사의 뒷모습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이튿날 오후 한 시, 신씨 일행의 출발 시간이 촉박해 오고 있었다.

신씨는 관용한 명사로서 석별의 정을 표시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인사를 하고, 두툼한 손으로 악수까지 바꾸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는 그들 중의 한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되

지 않았던 것이다.

이 박사는 벌써부터 누구를 기다리는지 몇 번이나 시계를 꺼내 보다가 마침내는 안절부절을 못 하고 문 밖에까지 나가, 사방을 휘돌아 보기도 하였다.

그는 정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 의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박사는 험한 표정을 짓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는 시계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또 차지하기 시작한 싸늘한 모멸감으로 식어져 가고 있었다.

‘아직 자고 있는 거지. 어저께 밤에 너무 술을 마시더라. 아주 나태한 술고래가 되었구먼.’

이제 그는 구우의 불우와 궁박이 모두 그 자신이 뿌린 씨만 같았다.

자동차 소리가 났다. 그들이 자동차를 타려고 양조장 집을 나갔을 때였다.

뚱뚱한 정 의사가 큰 소리로

“이 선생! 이 선생!”

하고 외치며 구르다시피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 박사는 마중을 하듯이 두어 걸음을 옮겨 그를 기다렸다.

달려온 정 의사의 가슴은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넥타이는 흐트러지고 조금 남은 머리털은 땀으로 귀 뒤에 찰각 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의 특징인 명랑한 빛이 없고 운 것처럼 눈등이 부어 있었다. 그는 숨이 차서 채 말을 못하고 허덕거리다가

“아아 정말 못 만나구 떠나는 줄 알았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왕진을 잤다고요. 그런데 환자는 때를 놓쳐 그만 불행…….”

그는 말끝을 못 맺었다. 굵다란 눈물이 주르륵 뺨을 굴러내렸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눈물을 씻고

“웃어 주시오. 나는 삼십 년이나 의사 생활을 하여 헤아릴 수 없도

록 죽음을 보았건만 아직도 사람의 죽음에 냉연할 수가 없소.”

하고 찌그러진 얼굴로 억지로 웃는 것이었다.

순간, 이 박사의 등골을 싸늘한 무엇이 번개같이 달려 내렸다.

“어서 오르십시오.”

누구인지 가까이 와서 재촉을 한다. 이 박사는 말없이 정 의사의 손을 힘차게 잡은 후 차에 올랐다.

“평안히.”

“평안히.”

정 의사는 손을 든 채 화석한 듯이 서 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박사는 눈을 감고 의사 생활 삼십 년에 여지껏 죽음을 냉연히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정 의사를 생각하자, 죽음이란 신비하고도 엄숙한 사실을 어디까지나 직업적 무관심으로만 보아 온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 의사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박사의 가슴에는 그의 그림자가 점점 커져서 자기를 덮는 것만 같았다.

(1948. 4.)